

‘한국어’ 과목용 한국 문학작품 선정 연구 —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남연(南燕)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제4회 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2018.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한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 III. '한국어' 과목용 한국 문학작품 선정 기준
- IV. '한국어' 과목용 한국 문학작품 선정의 실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은 대체로 두 가지 층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나는 '기초(중급, 고급)한국어'나 '중합한국어' 등의 '한국어' 과목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작품 選讀' 등의 '문학' 과목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전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 능력 신장을 지향하는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고, 후자는 문학 원리에 입각한 문학 능력 신장을 지향하는 문학 자체에 대한 문학교육이다. 문학 자체에 대한 문학교육에서 활용될 문학작품의 목록화 연구는 이미 필자에 의해 시도된 바 있고,¹⁾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과목에서 활용될 문학작품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될 문학작품 선정에 관한 연구 논문이 수십 편이나 나왔다. 작품 선정 기준을 연구하는 원론적인 연구²⁾

1) 이에 대해서는 남연(2015)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최근의 연구로는 남연(2011), 김청아(2011), 양전(2011), 김해옥(2012), 박상미(2012),

뿐만 아니라 장르별 작품의 목록화, 위계화 등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³⁾ 그리고 포괄적인 논의에서부터 세분화되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언어교육원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해외의 특정 지역, 특정 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즉 지역적 특징을 감안한 지역화 연구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관련 연구 논문이 10편 정도가 발표되었다.⁴⁾ 이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모두 문학사나 문학작품 선독(選讀) 과목에서 활용될 문학작품 선정 및 목록화에 관한 논의들이다. 특히 신윤경(2012), 박은숙(2015), 남연(2015)은 문학사의 시대 구분에 따라, 일부 고전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개화기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의 작품 목록을 비교적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구해 냈다. 이들은 주로 문학 자체에 대한 문학교육에 치우쳐 있는데, 이를 통해 문학 자체에 대한 문학 교육이 기존 연구의 한 추세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학을 통한 교육(‘한국어’ 과목)을 위한 작품 선정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⁵⁾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와 ‘한국어’ 과목의 문학작품 선정 기준 마련과 목록화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시

강서원(2014), 구모아(2014), 조홍련(2015) 등이 있다.

3) 최근의 연구로는 장정숙(2010), 김혜영(2011), 정해권(2011), 박미향(2011), LIN JING(2015), 송선주(2017), 최가연(2014), 남연(2015), 박은숙(2015),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5), 진가가(2015), 고경민·김세준(2015), 조윤정(2016), 오지혜·김혜영·신윤경(2016), 송선주(2017)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연구에는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4) 남연(2005), 남연(2011), 신윤경(2012), 남연(2013), 남연(2015), 박은숙(2015), LIN JING(2015) 등이 있다.

5) 남연(2011)에서 ‘한국어’ 과목에서 활용될 문학작품의 선정 기준에 대한 언급을 시도한 바 있지만,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도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실제 교재 편찬이나 현장 교육의 효율성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한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한국어’ 과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신장시키고 한국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문화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종합적 과목이라고 규정짓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되 ‘한국어’ 과목의 성격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성 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과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 학과의 교육 목표에 대한 이론적 반성과 현실 교육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에 대해 필자는 졸고(남연, 2011: 256-259)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즉 교육의 본질⁶⁾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⁷⁾에 비추어 보아 한국어학과 현행 교육 목표⁸⁾ 설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냈던 것이다. 현행 한국어학과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
- 6)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니 인성 교육(인성 함양)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7) 다양성과 복잡성에 뿌리를 둔 지식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에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건전한 인성(인문학적 소양)과 창의력(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다.
 - 8)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는 조선(한국)어문학 기초 지식을 가지게 하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번역하기 기능을 신장시키고,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외교, 정치, 경제 현황 등에 관한 비교적 폭넓은 이해를 가지며, 중국과 세계 문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익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 소속 대학 내 한국어학과 교육목표의 일부)

(언어 기능의 숙달)과 문화 능력 신장(문화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한국학 분야의 기능적인 인재⁹⁾를 양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인성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창의적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문화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인간다운 인간(인성 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여기에 보완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주장은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라는 조건에만 맞게끔 제기된 것이고 모든 한국어교육(외국어교육)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¹¹⁾ 대학교의 한국어학

9) 한국어는 잘하지만 창의적 사고력이 결여된 학생, 한국 문화 지식은 잘 알지만 인간애가 결여된 학생,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학생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0) 이상의 논의는 필자 소속 대학의 교육과정(2009년도 버전)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2014년에도 수정 버전이 나왔지만, 이렇게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행히 2016년도에 수정한 교육과정에는 인성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이념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학 한국어 시리즈 교재(강독 교재, 듣기·말하기 교재, 읽기·쓰기)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중국 국내 26개 대학교 및 한국, 대만 소재 대학교의 교수들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시리즈 교재의 편찬 이념을 보면 역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문화 능력 신장을 위주로 하고 있다. 즉 교재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한국 문화 항목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인성 함양에 관한 고려는 소략한 게 사실이다. 이 점은 인성 함양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이 아직도 많이 미약하고, 또 인성 교육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인성 함양을 위한 교재 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일선 교사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인성 함양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알고 있다면 공식 교재 없이도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 가르치거나, 수업 중에 관련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없이는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주어지더라도 그 실제적인 교육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1) 예컨대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알려고 공부하러 오는 단기 과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언어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런 인성 교육과 창의적 사고력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듯하다.

과라면 그 목표 설정도 당연히 대학교의 양성 목표 설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교의 양성 목표는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기능적인 인재(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대학생 문화적 소양 교육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關於加強大學生文化素質教育的若干意見)>(1998)¹²⁾ 및 《대학교 비통용어 학과의 학부 교육 수준에 관한 국가적 기준(高等学校非通用语种类专业本科教学质量国家标准)》(2018.1)¹³⁾에도 이러한 목표 설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중국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학과도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강조해야 하고, 이를 목표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국어학과에서도 이러한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필자의 줄고(남연, 2011: 264-266)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의 현장 교육 경험 등을 통해서 볼 때 적어도 2학년 1학기부터는 짧은 수필을, 2학년 2학기부터는 간단한 단편소설과 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교육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¹⁴⁾

12) 이 문서에서 인문교육 강화에 대한 중국 교육부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는 사상도덕 소양, 문화적 소양, 전공지식 소양, 신체 심리적 소양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문화적 소양은 가장 기초적인 소양으로 간주된다. 인문학적 소양 교육(인문 교육)에 중점을 둔 문화적 소양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대학생들에게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자연과학 분야의 교육을 강화시키므로써 전체 대학생들의 문화적 품위, 심미적 취향, 인문적 소양 및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다.”

13) 비통용어의 양성 목표에도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비통용어 학과는 국가에 충성을 바치고 국제적 시야 및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는 국제화 다원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외국어의 언어, 문학, 문화 지식, 전공 지식을 숙지하고, 언어 사용 능력,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국가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지니는 인재로서 외국어교육, 언어 서비스업, 외국인관 관련된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연구 능력도 지녀야 한다.”

14) 남연(2011: 265)에서 필자가 강의했던 문학작품 목록도 제시해 두었는데 참조하기를 바

이에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학과에 개설된 모든 과목에서 인성 함양 및 사고력 신장을 지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중 특히 ‘한국어’ 과목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한국어’ 과목은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어’ 과목은 인성 교육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학작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⁵⁾ 인간 정신(인성 함양)을 다루는 인문학 분야에는 문학만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 것이 없다(박인기, 2001: 20). 철학, 역사 등 인문학 과목에서도 인성 교육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이런 과목에서는 전문성을 띤 설명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학의 경우, 개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의 한 대목을 가지고 ‘감정이입’의 방법(직접 체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한편, ‘한국어’ 과목에서 인성 함양 교육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 교육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한국어’ 과목은 ‘문화주의’에 지나치게 빠져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모든 교과목은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문화 능력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게 되었고, 교육 내용도 학습해야 할 문화 항목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문화 교육은 대체로 심층적인 것(내재적인 것)보다 표상적인 문화 현상, 전통 문화보다 현대 문화 현상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 물론 심층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지는 않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¹⁶⁾ 이는 현실적

란다.

15) 문학과 인성 교육,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의는 남연(2011: 259-266)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16) 중국의 外研社(외국어 교육 및 연구 출판사) 한국어 편집부의 담당자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출간된 대부분 교재들의 주제를 비교하고 초보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

인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교육의 추세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 말만 잘하고 한국 현대 문화 현상만 잘 아는 그야말로 현대 생활에 적응이 잘 되는 ‘현대’의 기능적 한국학 인재를 양성해 내게 되었고, 한국의 유구한 정신적 자산(精神財富)은 무의식적으로 말살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자산(精神財富)에는 선비 정신, 실학사상 등의 전통 사상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문학 정신(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인성 교육과 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적 자산에 관한 교육 내용이 배제된 현행 한국어 교육,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얼’이 배제된 편면적인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 사람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풍부한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매력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은 외국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음

시해 본다. 이를 통해 현대 문화 현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현행 교재 편찬의 흐름을 대략 확인해 볼 수 있다.

단계	주제
중급(상)	수강신청, 소풍(한불, 고장 수리), 교통(사고 묘사 및 처리), 병원(진찰 받는 과정), 보고, 취미(영화 보기, 음악, 운동), 방송이나 신문의 기사, 꿈(장래의 계획), 한국어 학습의 난점, 단체여행이나 행사, 직장(회사, 인턴), 개인의 특기, 언어와 문화(속담), 설탕소, 유행하는 먹거리(치맥 등), 복권, 세시풍속, 집구하기
중급(하)	뉴스 사건, 한국 음식의 특징과 건강, 한국인의 성격, 한국 사회 문제(남북한 문제, 실업 문제, 환경 문제), 한국의 명승지 소개(사투리), 한국의 직장 문화, 한국의 문자, 병역, 인터넷 소풍, 신매체, 한국의 경제(집값, 일상의 재테크), 환경 보호, 젊은이의 고민(다이어트, 성형 등), 문학작품, 민간 전설, 젊은이의 결론관
고급(상)	매체 보도(전문용어), 민속과 생활(전통 민속의 현대적 영향), 과학과 기술(과학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직장 생활, 경제와 생활(주식, 재테크), 대중문화와 예술(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비교 및 계승), 소설, 사회 문제, 여가, 한국의 교육, 인간과 자연, 인생의 전환점, 생로병사
고급(하)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치(한국의 대선), 경제(부동산), 사회(육아 문제, 남녀평등, 노령화 문제), 여가(문화산업), 문학(한국 문학의 특징), 직장(면접 노하우), 논문 작성 기법

미해 볼 만한, 무한한 정신적 자산을 가진 무게 있고 매력 있는 나라로 기억 될 것이다.¹⁷⁾¹⁸⁾

끝으로,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과목은 한국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과목과 차별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짚어 본다. 한국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과목은 어휘 문법 학습과 함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균형 있게 신장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한국어’ 과목은 어휘 문법 학습과 독해(읽기) 능력 신장에 주된 목표를 두고 기타 언어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을 부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어’ 과목에서 다루는 어휘 및 문법 수량이 한국 쪽보다 훨씬 많고, 독해 자료의 난이도도 높고 분량도 훨씬 많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국어’ 과목은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되, 실제로는 읽기 기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강독(精讀)’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외국어 교육의 전통을 이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질 높은 전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볼 수 있다.

-
- 17) 필자가 가르쳤던 3학년의 한 학생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2학년 때까지는 원작 수필이나 소설을 접해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이 있군요. 좀 일찍이 이런 글들을 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학년 때까지는 교사들이 편찬한 교재를 통해 한국어 공부를 왔던 학생이 3학년이 된 후 필자에게 한국인의 아름다운 심성(인문학적 정신)이 가득 담긴 글을 배우면서 느낀 소회이다. 이 학생의 말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적 자산이 담겨 있는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었다.
- 18) 물론 앞서 말한 표상적인 문화 현상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모든 교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 ‘시청각’, ‘신문 읽기’ 등의 수업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한국어’ 과목은 가장 핵심적인 교과목으로 이러한 편협한 ‘문화주의’의 늪에서 빠져 나와 언어문화 지식 전달만을 위한 교과목이 아닌, ‘무게가 있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수하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과목은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 능력 신장만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과목이다. 어휘 문법 학습 및 독해 능력 신장을 위주로 하되, 기타 언어 기능의 숙달 및 문화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강독(精讀) 위주의 통합적 과목이다. ‘한국어’ 과목은 한국인의 정신적 자산(인문학 정신)이 담겨 있는 제재에 관한 여러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 특히 한국의 정신적 자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개인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널리 알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 ① 제재에 나온 중요한 어휘와 문법, 표현 등 언어적 요소의 의미와 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
- ② 읽기(독해) 능력 신장을 위주로 하되, 듣기, 말하기, 쓰기, 번역하기 기타 언어 기능의 활동도 부차적으로 설계하여 의사소통 능력(통합적 언어 운용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둘째,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¹⁹⁾

19)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분류되고 논의되어 왔다. 이들 분류는 문화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거시적 관점(문화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언어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으로 본 구성 요소는 의식주 문화 같은 문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미시적 관점으로 본 구성 요소는 호칭, 언어 예절, 속담 등 언어 속에 담긴 문화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종합적 관점이 추가되었다(한정범, 2014: 12-13). 실제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의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관점에 근거하여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한 하위 목표를 의식주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문화 지식과 언어 속에 담긴 미시적인 문화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제재의 사회적 배경,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 등과 같은 거시적인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 ② 어휘, 문법, 표현 등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이해한다.
 - ③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이해한다.
 - ④ 제재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적 자산의 우수성, 유구성(悠久性)과 그 가치를 이해한다.
- 셋째,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 ① 제재의 내용이나 주제를 학습자와 관련 지어, 언어 기능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성취하도록 한다.
 - ②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요인인 자발성, 상상력 등에 관한 훈련 방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III. ‘한국어’ 과목용 한국 문학작품 선정 기준

기존의 한국어 교육은 언어 능력 신장 및 문화 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언어 수준 및 배워야 할 문화 항목을 제재(문학작품 포함)의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과목을 비롯한 중국 내 한국어학과와 궁극적인 목표가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작품 선정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한국어’ 과목의 교육 목표에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 문화 능력 신장,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 등의 세 가지 하위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 즉, 작품 선정의 주된 기준으로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맞고 한국어 언어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제재를 선정해야 할 것,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제재를 선정해야 할 것,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²⁰⁾에 도움이 되는 제재를 선정해야 할 것, 이 세 가지인데, 이들은 바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 선행 연구에서 복수로 제기된 기타 요소들, 예컨대 문학적 가치, 학습자 흥미 유발, 언어의 규범화, 작품의 길이, 시대의 균형, 작가의 균형, 한중 비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작품을 선정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작품의 선정 기준으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뿐만 아니라 인류에 관한 ‘보편적인 주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²¹⁾ ‘보편적인 주제’, 이것은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재 편찬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역시 한국문화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인성 교육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편적인 주제(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제재)’는 단지 부차적인 것일 뿐이지, 주류가 될 수는 없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한국어’ 과목에서 작품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무엇보다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제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즉 실제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따라 작품을 선별한 후 작품 속에서 배워야 할 문화 항목에 들어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 중 언어적 수준 판별에 관련하여 황인교·김성숙·박연경(2004: 231-280)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언

20)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힘과 창의력이 얻어지게 되는 법이다. 그것은 흥미라는 요소의 작용 때문이다. 흥미가 사람들의 창의력을 촉진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필자는 ‘흥미’를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보고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로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에 한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1) 관련된 연구로는 윤영(1999), 주은정(2002), 조윤정(2016) 등이 있다.

어적 요소는 학습자의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선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아니며, 보통 학습자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가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작품의 주제 및 텍스트의 수업에서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하다. 학습자는 자신이 관심이 있고 잘 아는 내용이라면 쉽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수준 판별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고 앞의 두 요소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1. 인성 함양(인성 교육)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

학습자의 인성 함양(인성 교육)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대해 정기철(2001)의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²²⁾ 정기철(2001: 215-230)은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선별하여 읽을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인성 함양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

주제	세부 내용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	①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 ②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 ③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 ④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내용 ⑤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장애를 극복하는 내용 ⑥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내용 ⑦삶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내용 ⑧주체성과 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⑨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 ⑩ 카타르시스의 원리에 의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내용

22) 물론 정기철의 연구에만 기대는 방안이 다소 편협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요구나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 상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일단 정기철의 연구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 1차적 선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의 요구나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 2차적 선정 기준을 추려 낸 후 보다 세밀한 2차적 선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남연(2011)에서 〈소음의 공해〉라는 소설을 예시로 하여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교수-학습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니 이 연구를 통해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 ②행복한 가족을 구성하는 내용 ③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 ④가족이 협심하여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내용 ⑤가족 간의 회생을 다룬 내용 ⑥형제·자매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내용 ⑦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중히 하는 내용 ⑧가족을 그리워하고 기리는 내용
친구와의 우정 쌓기	①진정한 우정에 대한 내용 ②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 ③서로 우정을 나누는 내용 ④친구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내용 ⑤특수한 장애·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는 내용 ⑥친구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 ⑦계층이 다른 친구들과 이해하고 화해하는 내용 ⑧서로의 취향이나 성격, 자라 온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 ⑨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내용 ⑩친구 간에 서로 다투다가 피해를 보는 내용 ⑪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이야기와 그를 해결하는 내용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①이웃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 ②서로 이해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내용 ③새로 이사 온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가는 내용 ④농촌과 도시, 사는 지역이 다른 이웃의 삶을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⑤상류층과 하류층, 계층이 서로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내용 ⑥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룬 내용 ⑦힘을 모아 불의와 항거하는 이웃 사람들의 삶을 다룬 내용 ⑧주변에 누가 사는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 ⑨나·가족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내용 ⑩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 ⑪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내용 ⑫장애인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의 생활을 다룬 내용
성(性)에 대해 이해하기	①생명의 탄생 과정을 담은 내용 ②신체 발달과 성 기능의 발달을 담은 내용 ③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를 담은 내용 ④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담은 내용 ⑤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내용 ⑥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 ⑦성폭행, 성희롱이 상대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담은 내용 ⑧성은 사랑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 ⑨낙태가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내용
사회 문제를 비판적 으로 끌어안기	①사회와 개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깨닫게 하는 내용 ②지구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담아내는 내용 ③기계문명과 물질문명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④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 ⑤현재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는 내용 ⑥과학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지만 그 폐해도 크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 ⑦핵전쟁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 ⑧동물과 식물을 아끼고 지켜야 됨을 깨닫게 하는 내용 ⑨분단의 아픔을 알리고 통일의 필연성을 알리는 내용 ⑩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 ⑪부정부패 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⑫해위 임박한 문제를 다룬 내용 ⑬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내용
국가, 민족, 우리 문화를 지키는 마음	①우리 민족의 연원과 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②국가·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삶을 다룬 내용 ③국토의 소중함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담긴 내용 ④국가와 민족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는 내용 ⑤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⑥재의 동포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내용 ⑦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통일의 필연성을 알리는 내용 ⑧민족이 겪은 고통과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낸 조상들에 대한 내용 ⑨유형/무형 문화재의 가치와 귀중함을 일깨우는 내용 ⑩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과 전통 문화를 알게 하는 내용 ⑪세시 풍속 등 우리의 전통 풍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⑫우리 생활 속에 깃들여 있는 조상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내용

삶을 위한 지혜 쌓기	①삶,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이해를 주는 내용 ②삶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와 슬기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 ③삶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가는 내용 ④근면과 성 실을 몸예 익힐 수 있는 내용 ⑤냉정한 비판력과 따뜻한 마음, 정서를 갖게 하는 내용 ⑥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는 내용 ⑦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하는 내용 ⑧봉사와 희생을 주요 덕목으로 하는 내용 ⑨모든 삶은 다르나 모두 가치 있고 평등하다 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내용 ⑩어른과 아이의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
----------------	--

위의 표에 제시된 내용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와 결부되어 선정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만 ‘국가, 민족, 우리(한국) 문화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주제와 ‘성에 대해 이해하기’라는 주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한국 문학 내지 한국 문화를 대하는 중국인(외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학습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모국어 학습자인 한국인에게 한국어, 한국 문학 내지 한국 문화의 학습은 ‘공동체 형성’이란 민족적 목표가 부여될 수 있는 데 반해,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러한 민족적 주체 형성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국 문학 내지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데올로기와 감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런 것들과 결부된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실제 교수-학습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제하거나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담은 글을 다룰 때 한국 문화 이해의 차원에서 가르치되 조국인 중국, 중화민족, 중국 문화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도록 연관 지어 유도함으로써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연, 2011: 265-266).

그리고 성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성은 삶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인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성 교육에서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지게 하는 내용은 필수적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의 또 다른 목표가 한국의 우수한(적극적인) 문화(특히 정신적 자산)를 익힌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위의 표에 제시된 성에 관한 교육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①~④번의 내용은 지식 측면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내국인(한국인)을 위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고, ⑤~⑨는 사회 문제로 학습 활동의 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2. 한국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내용의 선정이나 단계별 위계화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었는데,²³⁾ 그 중에서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국립국어원, 2011)²⁴⁾가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 교육 내용을 7단계로 등급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 1, 2급은 초급, 3, 4급은 중급, 5, 6, 7급은 고급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 내용을 크게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성취 문화에서는 다시 한국의 문화유산과 한국의 문학과 예술, 한국의 역사로 분류하였고, 행동 문화와 정보 문화는 모두 한국인의 생활과 한국 사회, 한국인의 가치관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하위 항목에는 보다 상세한 문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시하기에 중요한 목록화, 위계화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아쉬운 것

23) 관련 연구로는 정경은(2001), 박초롱(2013), 황설운(2013), 이희원(2015) 등이 있다.

24) 이 연구는 유럽공동참조기준, ACTFL, HSK, JLPT, TOPOK 등의 국내의 외국어교육 평가 관련 문헌과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 실태를 검토, 분석한 후 표준 교육과정 설계를 한 것이다. 그 후 전문가 델파이 방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표준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은 전통보다 현재에 치중한 느낌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신적 자신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성취문화에 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인성 교육 주제를 반영한 작품들의 경우, 성취 문화와 더 깊은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룬 박영순(2010)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을 보완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박영순(2010)에서는 문화의 유형을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대중 예술과 고급예술), 생활문화, 제도문화, 학문문화, 산업기술문화로 분류하고 있는데,²⁵⁾ 이는 국립국어원(201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박영순(2010)의 분류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선명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의 편의상 박영순(2010)의 기준대로 국립국어원(2011)의 연구 내용을 재편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면 관계 상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간단한 예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내용들

항목	소항목	문화 요소	
		박영순(2010)	국립국어원(2011) ²⁶⁾
정신 문화	가치관	유교적인 윤리도덕의 약화, 직업의 평등의식화 등 10가지	【중】건강 의식의 변화(웰빙 현상 등, 건강식품)
			【고】가치관의 변화(미의 기준 변화), 직업관의 변화 등
	민족성과 정서	가족집단주의, 우리주의, 권위주의 등 18가지	【중】빨리빨리 행동하기(음식 배달, 퀵서비스)
			【고】정서(정, 한, 신명), 가족주의 (학연, 지연, 혈연, 계, 이웃사촌, '우리'의 사용)

25) 이 중 학문문화와 산업기술문화는 위낙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논외로 한다. 박영순(2010: 18)

26) 【초】【중】【고】로 각 단계별 내용을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다.

정신 문화	상징 체계	수, 색, 꽃, 산, 동물의 상징 의미	
	사상	홍익인간 사상, 선비 사상, 효 사상, 무속 사상, 권선징악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종교 ²⁷⁾	종교관, 종교의 분류(불교, 유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풍수지리)	【중】민간신앙(금기행동 등) 【고】주요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의 신도분포
역사		시대별 역사와 중대 사건 및 역사 인물	【고】시대별 역사와 중대 사건, 역사 인물
문학	고전 문학	신화, 고대가요, 향가, 별곡, 경기체가, 한시, 시조, 가사, 한문소설, 구비문학, 판소리, 국문소설 등.	【고】전래동화(공쥐와 팔쥐, 흥부와 놀부 등), 시대를 반영한 고전 시와 현대 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건국신화(단군신화), 설화(선녀와 나무꾼), 전설(장자못 전설), 민담(구미호)
	개화기 문학	신체시, 신소설, 우화, 전기 등	
	현대 문학	각 시기 대표작가 및 작품들	
예술 문화	음악	악기(거문고), 기악(사물놀이), 성악(민요(아리랑), 시조, 판소리)	【고】 ①전통음악과 현대음악(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판소리, 민요, K-POP) ②전통공연과 현대공연(탈춤, 부채춤, 난타, B-boy, 점프)
	한국화	고분벽화, 인물화, 청록산수화, 불교화, 이경, 이제현, 공민왕; 안견, 남종문인화, 정선, 김홍도, 신윤복; 김은호, 김기창, 이숙자, 민화	
	서예	김정희 추사체/궁체	
	조각	불상, 불탑, 금속활자, 현대 조각가 김복진 등 작품, 철과 합성수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조각	【고】 ①전통음악과 현대음악 아리랑(각 지역 아리랑) 전래동요(까치, 두껍아) 동요(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웅달샘) ②전통미술과 현대미술 동양화(김홍도, 신윤복), 백남준(비디오 아트)
	공예	토기·금속공예·석공예, 청자·나전칠기, 조선의 분청사기·백자·목공예·화장각·탈·금속공예 등	
	무용	범무, 민속무용, 신무용	
	연극	제천의식, 가무백희, 산디놀이와 나레, 가면극, 신연극	
	영화	연쇄극, 무성영화, 발성영화, 예술영화; 80년대 이후 국제영화제 수상 작품들 출현.	

27) 박영순(2010)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와 의식문화’라고 하여 세시풍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한국인의 관습과 세속풍속’에서 다루기로 한다.

	유형 문화재	석조문화재, 목재문화재, 전적류, 서적류,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과학기서류, 유물유품 등 중요한 것 95개		【초】유적지, 역사마을,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 【중】문화재로 지정된 도자기, 사찰, 탑, 공예, 예술품
	무형 문화재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음식, 음식과 무예, 공예기술 등 분야의 115가지		【초】한복, 강강술래 【중】전통혼례, 농악 【고】전통놀이(널뛰기, 윷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
언어 문화	문자	한글의 창제 원리		【초】인사하기, 빈말 표현, 이름과 호칭(친족호칭, 사회적 호칭, 혼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 몸짓 언어, 한과 한국 창제 원리
	경어법	존대의 등급, 호칭, “-사-”, 대명사, 조사, 존대어휘, 겸양법		
	문화어	고유명사, 일반명사, 동사 등		
	속담	불교·중국·농사·말·소 관련 속담, 생활 지혜와 각성을 나타내는 속담		【중】이름과 호칭(친가친척 관계, 외가친척 관계), 사물을 비유한 표현(마음이 바다처럼 넓다/호박처럼 생겼다), 신조어, 유행어, 속어, 줄임말, 통신언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은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장밋빛 공약 / 얼굴에 철판 깔다. / 거품 논쟁 등		
	한국적 표현들	빈도수 높은 말	눈치/정신없다/ 너무/ 멋 / 판치다 등	【고】속담, 여러 가지 색채어, 관용표현, 비유 표현
독특한 표현들		현유 등 12 가지		
생활 문화	기본 예절	언어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생활예절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음주예절, 교통예절
	식생활	음식문화 특징, 음식 명칭, 기능·재료·부엌기구, 조리방법에 따른 음식 용어, 음식생활 용어		【초】상차림, 특별한 날 먹는 음식, 한국인이 자주 먹는 음식, 식기의 종류, 손가락과 젓가락 사용용도 및 사용법
	의생활	옷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옷이 날개다), 한복, 개량한복, 양복, 옷의 기능과 재료에 따른 명칭		
	주생활	주거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전통 건축 특징, 한국의 건축미		【고】장, 김치, 떡, 전통 음료, 전통주, 각 지역의 유명 음식
	여가 생활	종교 활동, 취미 활동, 놀이, 스포츠(태권도, 씨름), 여행, 봉사활동		【중】스포츠(야구 등), 응원(붉은 악마), 친목모임·동호회(등산모임, 찜질방, 노래방 등), 계절활동(벚꽃놀이, 단풍놀이)

생활 문화	관습과 세시 풍속	공휴일, 명절, 관혼상제(결혼, 출생 100일 및 1년 경축, 생일 축하, 회갑연, 고회연, 장례, 제사, 성묘)	<p>【초】성인식, 결혼문화, 설과 추석 풍습(세뱃돈, 차례 등), 장례·제례(장례식, 제사 방법)</p> <p>【중】주요절기와 풍속, 관례·혼례, 장례·제례</p> <p>【고】연애(미팅, 맞선, 중매, 결혼정보회사)</p>
	공동체 생활		【중】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경제 생활		<p>【중】재래시장, 흥정과 덤, 지불 방법</p> <p>【고】재테크, 자린고비, 기부</p>
	사회 일반		【고】 복지정책, 성 역할, 사회제도, 사회문제
제도 문화	교육 제도	학제(유치원~대학원), 대학입시제도(교육열, 국사립교육(학원), 높은 대학진학률(낮은 문맹률), 평생교육, 교사증(교육대학, 사범대학)	<p>【초】학제, 학기시작 시기,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p> <p>【중】제도(대학입시, 학군, 외고, 특목고), 교육열(조기교육), 평생교육, 낮은 문맹률, 높은 대학진학률</p> <p>【고】교육열(입시, 과외, 기러기 아빠, 고3병), 교육문제(주입식 교육, 대학 진학 중심교육, 사교육, 교권추락 등)</p>
	행정 제도	직선제, 3권 분립, 지방자치제, 중앙 18부서·4처·5청 등 기관, 공무원	
	경제 제도	시장경제제도(공기업, 민간기업),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새마을운동, 대기업(삼성전자 등)	<p>【초】화폐의 종류</p> <p>【고】세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은행, 자유무역협정</p>
	법제도	헌법, 법의 집행기관, 사법고시, 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 제도	신문사,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언론 용어, 통신·잡지	
자연과 산업 기술	자연과 기후	산, 강, 바다, 항구, 평야, 동굴, 기후	<p>【초】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 사계절과 날씨</p> <p>【중】한국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p>

자연과 산업 기술	도로와 교통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교통(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초】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교통체계(버스 종류, 버스전용차선, 지하철 노선, 환승, 교통카드)
	도시	수도 광역시, 도, 크고 작은 도시 등.	【중】대표 지역, 행정 구역
			【고】대표 지역과 축제
	교량과 건물	교량(한강 대교 등), 건물(전통 한옥, 서양의 고딕식 건물 등)	
	산업과 기술	농업(인삼 재배), 수산업, 공업(토목건설업 조선업, 전기전자업, 기계공업, 섬유공업, 제철 산업, 통신업, 화학산업, 제지업, 의학, 한의학, 식품가공업, 제약업, IT산업, 문화산업, 패션산업, 유통업)	【중】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 신예절—댓글문화, 인터넷 예절, 인터넷 실명제)
			【고】과학의 발전(한국 과학 발전의 변천사),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상징물		한글, 태극기, 한복, 김치,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무궁화, 태권도, 고려인삼, 종묘제례악, 광화문 등	【중】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무궁화, 한글, 아리랑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2011)의 연구 내용은 문화 내용 요소를 위계화 및 세분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박영순(2010)은 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문화 내용 요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두 연구 내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표에 제시한 문화 내용들은 모두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주제별로 선정된 작품 속의 부차적인 문화요소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들이다. 이들 내용은 작품의 주된 주제로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부차적인 문화 요소로서 다루어지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짚어 두고자 한다.

3. 기타 선정 기준 요소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 외에 기타 부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들로 문학적 가치(정전성 문제), 학습자 흥미 유발, 언어의 규범화, 작품의 길이, 장르의 문제, 시대의 균형, 작가의 균형, 한중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비슷한 논의라 여기서는 생략하고 단지 ‘문학적 가치(정전성 문제)’와 ‘장르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있어 왔다. 이는 역시 ‘한국어’ 과목 수록 문학작품 선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면 통상 문학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대표적인 작품(소위 문학사적 정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상기하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은 문학사적 정전을 포함시킨 더 큰 범위의 작품들을 가리킨다. 문학사적 정전은 오랜 역사를 거쳐 대대로 읽혀지고 인정받아온 권위적인 작품들이다. 대체로 현재와는 일정한 시간적 거리가 있는, 이전의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의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그 문학사적 가치를 판별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작품을 제외시킬 수도 없다.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는 ‘한국어’ 과목에서는 오히려 사투리 사용 등의 언어적 문제를 안을 수 있는 문학사적 정전보다 이런 현대의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선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르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기존에는 수필, 소설, 시, 이 세 가지 장르 작품의 선정 및 목록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그러나 문학 장르로서는 이 세 가지 주된 장르 외에 전기(傳記)문학, 동화, 기행문, 설화, 편지글, 시나리오, 극 등도 있는데, 역시 수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 중에 특히 전기(傳記) 문학은 개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인성 교육용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²⁸⁾

28) 정기철(2001: 214)에서는 인성 교육으로서의 문학작품과 위인전(전기)의 교육성에 대해

IV. ‘한국어’ 과목용 한국 문학작품 선정의 실제

1. 문학작품 선정의 참조 범위

문학작품 선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재 수록 작품 목록, 한국 언어교육원에서 개발된 중·고급 교재 수록 작품 목록을 가장 많이 참조하였고, 소설 선정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보면, 베스트셀러 목록, 문학상 수상 작가의 목록, 기관 추천 도서 목록, 한국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가르치는 작품 목록 등을 각각 참조 범위로 설정한 경우가 있다.²⁹⁾ 이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기왕의 교재를 참조하는 것이다. 한국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재는 주된 참고서가 될 것이며,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한국의 4년제 대학교 언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보완적인 참고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작품 목록을 분석한 후 선정 기준에 맞는 작품이 부족할 경우 중·고등학교나 대학생이 꼭 읽어야 할 수필집 소설집 등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문학상 수상 작가의 목록 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 교과서가 지니는 보편성과 전문성 때문이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한국인들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작품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작품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읽기 교육을 위한 글의 선정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문학작품과 위인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학작품과 위인전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과 극복, 갈등과 화해, 불행과 행복, 슬픔과 기쁨이 있다. 글을 읽음으로써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와 정서, 생각을 읽어내고 대입과 이입을 통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확대이며 이입과 대입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29)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운정(2016), 신윤경(2012) 등이 있다.

읽기 체험, 상식을 공유하여, 한국인들의 정서, 사고방식이나 문화의식 등의 정신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 엄선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국어』와 『문학』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007년 교육과정, 2009년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주입식 교육으로서 지역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국가에서 한 가지 교과서만 만들어 배포해 왔는데,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교육부, 1999: 90)을 목표로 지향하는 7차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는 많은 교과서 업체에서 교과서를 개발하여 국가의 검인정을 받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는 7차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다양한 주제와 작가들로 국어과 이외의 보건, 사회, 역사, 문화, 지리 등의 다방면에서 교과 내용이 개정되었다(송선주, 2017: 44). 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개정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교육부, 2015: 26) 진일보 학습자 중심, 학습자의 창의성, 자주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7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교과서 편찬에도 현실 요구에 맞게끔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포함) 이후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을 선정을 위한 참조 범위에 넣을 필요가 있다.

2. 문학작품 선정의 실제

‘한국어’ 과목용 작품 선정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교재들을 선정 기준에 따라 일일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면의 제한과 작업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참조 대상인 한국 교과서의 일부, 즉 2009년(2011년 수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³⁰⁾에 실린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³¹⁾ 역시 지면의 제한과 작업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16종 교과서 중 시장 점유율³²⁾ 톱 5 위권에 들어 있는 교과서들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고,³³⁾ 또 문학작품 중 현대 문학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표 3〉 분석 대상 중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학교급	출판사	도서명	저자	점유율 ³⁴⁾
중학교	천재교육	국어(1-6)	노미숙 외	21.20
	천재교육	국어(1-6)	박영목 외	16.68
	비상교육	국어(1-6)	김태철 외	12.03
	미래엔	국어(1-6)	윤여탁 외	8.44
	창비	국어(1-6)	이도영 외	8.325

- 30) 2011개정 중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각각 16종과 11종이다.
- 3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2018년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도 중요한 참조 대상이 되겠지만, 문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문학적 정전을 위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전까지 포함시킨 『국어』 교과서에 비해 선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고 전문적이다. 그리고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중 많은 것들은 문학사 수업에서 다룰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상 문학작품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룬 『국어』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2)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비공식자료로 제공된 2016학년도 검인정교과서의 주문 현황에 따른 것이다.
- 33) 톱 5위권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들 교과서가 시장 점유율의 평균치(각종 교과서 주문의 평균 수치)인 7.14를 초과한 교과서들이기 때문이다.
- 34) 중학교 『국어』 6권의 평균 점유율을 제시한다.

위에서 언급된 『국어』 교과서들에는 현대 문학작품³⁵⁾ 중 시(38), 소설(23), 수필(16), 전기(3), 편지글(1), 시나리오(2), 희곡(3), 연극(1), 라디오 드라마 각본(1)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본문의 제재로 실려 있다.³⁶⁾ 다음 장르별로 이들 작품을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선정 기준, 즉 인성 함양의 성취에 도움이 주제와 한국 문화 요소를 적용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인성 함양의 성취에 도움이 주제의 하위 항목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번호로만 표시해 둔다.

〈표 4〉 2011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수록 현대 시 분석표³⁷⁾

작품(작가)	주제 내용	문화 요소	인성 함양 주제의 항 ³⁷⁾	출처
연분홍(김억)	꽃이 피었다가 지는 봄의 풍경	의태어		노1
처음 안 일 (박두순)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한 자신의 태도 반성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③	노1
새로운 길 (윤동주)	언제나 새로운 길(인생)을 가고자 하는 의지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⑦	노1, 윤1
엄마 걱정 (기형도)	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애통하게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	노3, 윤1, 이2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⑨	노4
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가난으로 인해 겪는 삶의 비애와 인간애	1970, 1980년대 도시 노동자의 삶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⑥ /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⑤	노4
봄길(정호승)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사랑과 희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지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⑤	노5

35) 학습 활동에서 다루는 일부 작품들도 참조 대상이 되겠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36) 이들 작품은 대부분이 전문 작가가 창작한 글이지만, 학생들이 창작한 글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글은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아무래도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연구 대상에서 논외로 한다.

37) 위에서 언급된 인성 함양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 중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한다.

저녁 한때 (임길택)	가족의 따뜻한 사랑	부엌 용어(아궁이, 도마 질)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	노5
청포도(이육사)	풍요하고 평화로운 삶에의 소 망	일제 말기의 시대 상황 / 칠월(도시), 의성어, 의 태어		노5, 박2, 이4
방을 얻다 (나희덕)	시인의 중요한 창작관에 대한 각성과 변화	전남 사투리, 담양 지실 마을(정철 고향)		노5
먼 후일 (김소월)	떠나간 임을 잊을 수 없는 심 정			노6 박5, 윤6
첫사랑(고재중)	첫사랑을 위한 헌신과 그 상처 의 아름다움			노6
해(박두진)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 망	일제 말기와 광복이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박1
시 창작하는 시간(조항미)	시를 창작하는 아이들의 생생 한 모습			박1
꽃가루 속에 (이용악)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박3
샛섬이 보이는 방(나희덕)	높고 순수한 예술 세계를 지향 했던 이중섭의 삶 상상	화가 이중섭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박3
동서남북 (김광규)	자연의 모습이 하나인 것처럼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북 분단의 현실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 로 끌어안기⑩	박4, 윤5
바다가 보이는 교실(정일근)	맑고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박4
깃발(유치환)	영원한 이상향을 향한 그리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⑦	박5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 며(이승하)	자연이 파괴된 오늘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의 이기 심에 대한 반성	낙동강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 로 끌어 안기④	박5
떨어져도 튼튼 공처럼(정현중)	색색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지 향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⑦	박6
호박꽃 바라보 며(정완영)	호박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함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	김1
밤에(최영철)	별과 달이 서로를 도와주는 아 름다운 모습			김1

우리가 눈발이 라면(안도현)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 고 싶은 소망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②	김1
옛새 소리 (백석)	냉혹한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김2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인내와 희생을 통한 참된 사랑 의 실천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⑨	김3, 윤3
나무1—지리 산에서(신경림)	나무를 통해 본 인간 삶의 이 치(이기적이지 않은 공동체 의 식을 가진 삶)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김3
민지의 꽃 (정희성)	자연을 대하는 소녀의 순수한 마음			김4
진달래꽃 (김소월)	이별의 슬픔과 사랑의 승화	한의 정서		김6
못난 사과 (조항미)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에게 서 느낀 아름다움을 역설적으 로 표현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⑥	김6
맨발(김기택)	맨발의 자유로움과 편안함			윤2
해바라기 씨 (정지용)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			윤3
동해 바다-후포 에서(신경림)	바다처럼 너그럽게 살고 싶은 소망, 성숙한 인격과 올바른 삶의 자세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윤4
독은 아름답다 (함민복)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 기를 바라는 마음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윤6
돌담에 속삭이 는 햇발 (김영랑)	봄 하늘에 대한 동경과 예찬	울림소리(반복)		이1
고래를 위하여 (정호승)	청년들에게 이상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 갈 것을 당부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⑧	이1
빵집(이면우)	빵집 주인 가족에 대한 연민과 동정	대형 빵집이 들어섬으로 인한 동네 빵집의 위기 문제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⑥	이3
배추의 마음 (나희덕)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		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 ②	이3

위의 분석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38편의 시 작품 중에서 22편의 작품 주제가 인성 함양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부합한다. 이 중 8편의 작품 속에 한국 문화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이들 작품은 기타 작품들에 비해 우선적 선정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표 5〉 2011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수록 현대 소설 분석표

작품(작가)	주제 내용	문화 요소	인성 함양 주제의 항	출처
자전거 도둑 (박완서)	부도덕하고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1970년대의 사회문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⑪	노1
일가(공선옥)	일가의 의미가 사라져 삭막해진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가족이기주의라는 현대 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⑪	노3
꽃신(김용익)	이루지 못한 사랑과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	한국전쟁, 1930년대, 꽃신이라는 전통문화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려는 마음⑩	노4
기억 속의 들꽃 (윤홍길)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전쟁의 참혹성	한국전쟁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⑧	노5
고무신(오영수)	젊은 남녀의 맑고 애뜻한 사랑	옛장수, 고무신 등 전통문화		박1
하늘은 맑건만 (현덕)	거스름돈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	1930년대 돈의 값어치 등 시대 문화적 배경요소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박1, 윤1
흰 종이수염 (하근찬)	전쟁이 가져온 비참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한국전쟁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⑧	박2
동백꽃(김유정)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아름다운 사랑	강원도 사투리		박3, 김2
물 한 모금(황순원)	작은 인정에서 얻는 따뜻함	평안도 사투리, 일제 감정기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간이역, 헛간 등)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박4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식민지와 전쟁의 비극을 거친 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	일제 강점기말과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⑧	박5
표구된 휴지 (이범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 사소함 속에서 얻는 삶의 위안	1960년대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 /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박6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오승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메주 문화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⑦	김2
소를 줍다(전성태)	소를 통한 부자간의 갈등과 사랑/주워온 소에 대한 가족 의 애정	1970년대 농촌 마을 이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사회 문제를 비판 적으로 끌어안기⑧	김3
수난시대(하근찬)	민족의 수난과 이를 극복하려 는 의지	일제 강점기부터 한 국전쟁 전후까지의 시대상황/경상도 사 투리	국가, 민족, 우리문화 를 지키는 마음⑧	김4, 이4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두려움과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신의 소중함	한국전쟁 이후의 사 회 부조리 문제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 ⑤	김5
이상한 선생님 (채만식)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를 틈 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고발	해방직후의 사회 문 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 로 끌어안기⑪	김6
돌다리(이태준)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들,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 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 로 끌어안기⑪	김6
내가 그린 허말라야 시다 그림(성석제)	한 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아이의 운명과 재능보다 소중 한 '좋아하는 마음/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②	윤3
노새 두 마리 (최일남)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 번두리에서 힘들게 살아 가는 한 가족의 불행한 삶	1970년대 서울이라 는 문화적 배경요소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⑥	윤4
치숙(채만식)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윤6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 과 아들을 향한 사랑	1930년대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	이2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어머니와 사랑손님 간의 사랑 과 이별	1930년대라는 세대 문화적 배경 요소		이3
꺼베단 리(전광용)	시류에 따라 변절하면서 순응 해 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비판/출세지향적 삶과 왜곡된 현대사에 대한 비판	해방직후라는 시대 문화적 배경 요소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 로 끌어안기⑪	이6

위의 분석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3편의 소설 작품 중에서 19편의 작품 주제가 인성 함양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부합한다. 이 중 17편의 작품 속에 한국 문화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삶의 현장(시대적 배경)을 보다 리얼리티있게 반영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다.

〈표 6〉 2011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수록 현대 수필 분석표

작품(작가)	주제 내용	문화 요소	인성 함양 주제의 항	출처
열보다 큰 아홉 (이문구)	청소년 시기는 '아홉'이라는 숫자처럼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임	한국 문화 속에서의 아홉과 열의 의미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 ①	노4 이3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성석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박지원의 작품 등 한국 고전		노5, 박6
별명을 찾아서 (정채봉)	별명에 얽힌 어린 날의 추억과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박1
킹콩의 눈(장영희)	어떠한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희망의 중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한국 사회의 문제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 ⑤	박5
어머니의 편지와 감 (문건영)	어머니의 깊은 사랑 / 사소한 것의 소중함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①	박5
학교 도서관, 위로와 치유의 공간(김정숙)	학교 도서관을 통해 받은 위로와 치유			박6
심재현, 사랑해 (최은숙)	제자(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⑫	김1
다시 시작하기 (장영희)	시련과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삶의 의지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 ⑤	김4
땅 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신비의 바닷길(곽재구)	해남에서의 여정과 여행하며 느낀 감상/ 조국 강산에 바친 사랑	해남, 윤씨의 종가 녹우당, 대둔사와 일지암, 미황사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③	김4
골목에서 꽃핀 창조적 수공예품(임영신)	공정 무역의 긍정적 가치	공정 무역 운동		김6

동물들은 모두가 서정시인(최재천)	시어가 사라지고 산문만 쏟아내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			윤1
괜찮아(장영희)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따뜻함(다른 사람에 대한 격려와 배려)과 희망(힘든 상황에서 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지)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②/자아 탐색과 자아 실현⑤	윤1, 이1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박완서)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겨낸 꿀찌 주자의 위대함을 깨달음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 ⑤	윤4
제비의 속도와 날벌레의 속도(윤구병)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위의 다양한 생명체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람		삶을 위한 지혜 쌓기 ①	윤5
내 기억 속의 책 한 권(권영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책을 읽는 일의 중요성	『백범 일지』		윤6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향 모색, 이윤 추구를 위해 무차별적 소비를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비판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길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①④	이5

위의 분석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16편의 수필 작품 중에서 10편의 작품 주제가 인성 함양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부합한다. 이 중 4편의 작품 속에 한국 문화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소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수필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소설과 달리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문구의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수필은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다룬 작품인데, 대학생에게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다소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청소년(이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록 대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표 7〉 2011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수록 전기 등 장르 작품 분석표

작품(작가)	주제 내용	문화 요소	임성 함양 주제의 항	출처
간송 전형필 (이충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전형필의 일생	역사 인물 전형필/ 무형문화재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⑨	김5
재능없는 사람은 없다(김규동)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재능과 소질이 있다.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⑧	김5
안중근 의사 자서전(안중근)	안중근의 용기 있는 희생정신과 위순 감옥에서의 삶 회고	역사 인물 안중근	국가, 민족, 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②	이5
어머니는 왜 숲속의 이슬을 떨어뜨렸을까(이순원)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생길의 진정한 의미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①/삶을 위한 지혜 쌓기①	윤5
킹콩을 들다 (박건웅)	열정적인 역도부 코치와 시골 여학생들 간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는 아름다운 도전			박4
달리는 차은 (민예지 외)	청소년기 꿈의 좌절과 극복	다문화 가정 문제	자아 탐색과 자아실현⑤⑦	김2, 윤2
꽃 피는 봄이 오면 (류정하 외)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던 남자가 희망을 찾는 과정		삶을 위한 지혜 쌓기②	윤6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오영진)	친일 세력이 판치는 병든 사회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와 비판	해방 직후의 사회문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⑪	박5
출세기(윤대성)	매스 미디어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 현상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1970년대의 사회문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⑪	김4, 이4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김정숙)	순수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지향	현대(2000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⑪	윤3
비밀(오금숙)	상대방의 비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필요성	오늘날의 한국말 문화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②	이6

위의 분석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11편의 작품 중에서 10편의 작품 주제가 인성 함양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부합한다. 이 중 7편의 작품 속에 한국 문화 요소가 담겨져 있다. 역시 청소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예지 외의 「달리는 차은」이라는 작품은 재고의 대상이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 과목용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이 추려낼 수 있다.

〈표 8〉 ‘한국어’ 과목용 현대 문학작품 목록

장르	작품	
시 (22)	문화요소 담김(8)	가난한 노래(신경림), 저녁 한때(임길택), 썬섬이 보이는 방(나희덕), 동서남북(김광규),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이승하), 뽕집(이현우), 깃발(유치환)
	없음(14)	처음 안 일(박두진), 새로운 길(윤동주), 엄마 걱정(기형도), 사랑하는 까닭(한용운), 봄길(정호승),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정형중), 호박꽃 바라보며(정환영), 우리가 눈발 이라면(안도현),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나무1-지리산에서(신경림), 못난 사과(조항미), 동해 바다-후포에서(신경림), 독은 아름답다(함민복), 고래를 위하여(정호승), 배추의 마음(나희덕)
소설 (19)	문화요소 담김(17)	자전거 도둑(박완서), 일가(공선옥), 꽃신(김용익), 기억 속의 들꽃(윤홍길), 하늘은 맑건만(현덕), 흰 종이수염(하근찬), 물 한 모금(황순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표구된 휴지(이범선),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오승희), 소를 잡다(전성태), 수난시대(하근찬), 아우를 위하여(황석영), 이상한 선생님(채만식), 노새 두 마리(최일남), 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덕), 꺼삐딴 리(전광용)
	없음(2)	내가 그린 히말리야사다 그림(성석제)
수필 (10)	문화요소 담김(4)	열보다 큰 아홉(이문구), 키크공의 눈(장영희), 땅 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신비의 바닷길(곽재구),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없음(6)	어머니의 편지와 감(문건영), 심재현, 사랑해(최은숙), 다시 시작하기(장영희), 괜찮아(장영희),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박완서), 제비의 속도와 나벌레의 속도(윤구명)
전기 등 기타 장르 (10)	문화요소 담김(7)	간송 전형필(이충렬), 안중근 의사 자서전(안중근), 달리는 차은(민예지 외),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오영진), 출세기(윤대성), 오아시스 섹터소 습격 사건(김진숙), 비밀(오금숙)
	없음(3)	재능없는 사람은 없다(김규동), 어머니는 왜 숲속의 이슬을 떨어뜨일까(이순원), 꽃피는 봄이 오면(류장하 외)

이상 분석된 총 89편 작품 중에서 61편의 작품이 인성 함양의 주제에 부합한다. 이는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육도 인성 함양 교육을 특히 중요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작품 속에 다루어지는 인성 함양의 내용 범위는 위에서 언급된 인성 함양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라

는 주제 항목과 관련하여,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 하위 항목 속의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에만 치중하고 있다. 기타 주제 항목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다 전면적인 인성 교육을 도모하려면 기타 주제 내용을 담은 작품들도 선정되어야 한다. ‘한국어’ 과목용의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징(수업 시수의 제한, 학생의 언어적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편폭이 짧은 수필이 시와 소설, 시나리오 등 기타 장르에 비해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의 목록을 보면 수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수필 작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작품이 실제 교수-학습에서 가르치기에 진정 적절한 작품 인지는 현장의 검증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 즉 위 목록은 단지 ‘한국어’ 과목의 교수-학습에서 활용될 만한 작품의 선정 범위를 제공한 것일 뿐이고, 현장의 학생들의 특징 및 요구에 맞게끔 다시 추려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장 효과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과목에서 활용될 문학작품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지만, 이 목록은 단지 ‘한국어’ 과목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작품은 다른 교과목에서, 강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 문화’라는 과목에서 문화 요소가 많이 담긴 문학작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시 같은 경우, 사실상 중국의 ‘한국어’ 과목에서는 강독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교재 속에 ‘하루의 시 한 편’이라는 코너를 설정하여 이 시들을 실어 두고, 또 강의 시작할 때의 처음 10분 동안 이 시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고 감정을 섞어 낭독하고 외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국 시(어)의 아름다움 등을 느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V. 맺음말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유효성이 많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재에서 문학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대만큼 높지 않다. 이것은 교재 편찬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문학작품 목록이 연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급한국어 교재를 집필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아쉬움을 느꼈던 필자는 향후 다시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중국의 ‘한국어’ 과목용 문학작품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작품 목록화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기존의 작품 선정 연구와는 차별화된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의 특징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지역화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이라는 지역적 특징은 한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 즉 한국의 언어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인성 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작품 목록은 중국 대학생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어’ 과목용 작품의 구체적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이론적 의미, 실제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구체적 분석의 방법을 보여주고 구체적 목록까지 제시해 두었다는 실천적 의미와 예시적인 의미도 지닌다. 또한 ‘한국어’ 과목을 위해 구성된 작품 목록이지만, 다른 교과목에서도 강독이 아닌 방법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목록은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 다만 작업의 방대함과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는 일부 작품에 대한 분석만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은 분석 작업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작품 선정 목록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본 논문은 2018. 7. 31. 투고되었으며, 2018. 8. 9. 심사가 시작되어 2018. 9.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서원(2014),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경민·김세준(2015),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텍스트 선정과 활용에 대한 고찰: 단편소설을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계제어문학』 54, 5-34.
- 교육부(1999), 『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특별 활동』,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5),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 -총론, 초등학교』, 세종: 교육부.
- 구모아(2015),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 김청아(2011), 「한국어 문학읽기 교재구성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철·김은형·김진수·박안수·임영환·강양희·강운순·강효정·김선희·김지령·김지선·김지은·김태희·류문숙·박상희·박수진·박채형·박현숙·심대현·유동걸·이지은·이진희·이현옥·임정아·정대승·정해은·제갈현소(2013), 『중학교 국어』, 서울: 비상교육.
- 김해옥(2012),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정전 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 교재 수록 문학 작품의 분포 분석 및 정전 선정 방법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30, 35-54.
- 김혜영(2011), 「한국어 교육에서 수준별 시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 텍스트 위계화를 위한 변인에 대한 고찰」, 『한국어 교육』 22(4), 215-246.
- 남 연(2005),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작품 읽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3, 241-272.
- 남 연(2011),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35, 255-291.
- 남 연(2013),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작품 선정 연구」, 『신청어문』 40, 775-800.
- 남 연(2015), 「한국 문학사 교육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작품 선정 연구」, 『한국어교육』 26(3), 73-115.
- 노미숙·주진택·안수진·김대경·박형라·김경란·김호태·신해연·홍현선·소정섭·정일순·최영미·류신형·허미선·장선영·김선주(2013), 『중학교 국어』, 서울: 천재교육.
- 박미향(2011),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현대시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2012),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이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목·정호웅·유현경·천경록·양기식·나윤·전은주·성난주·안순숙·박의용·임지은·백정운·신수정·남영민·이혜진(2013), 『중학교 국어』, 서울: 천재교육.
- 박영순(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림출판사.
- 박은숙(2015), 「중국 내 한국-조선 문학작품 정전 선정에 대한 연구」, 『한중언문학연구』 49,

- 박인기(2001), 「문학을 읽는 이유」,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의 이해』, 서울: 삼지원.
- 박초롱(201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내용 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선주(2017),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윤경(2012), 「중국 대학 한국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1990년대 이후 문학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223-242.
- 양 전(2011), 「시를 매개로 한 한국어 읽기교육의 활성화 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혜·김혜영·신윤경(2016),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문학과 구분과 작품 선정 방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54, 257-285.
- 윤 영(1999), 「외국인을 위한 소설교육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5),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진』, 서울: 하우.
- 윤여탁·조광국·이병운·김진식·윤석민·최미숙·구본관·김정우·박종훈·노지승·정정순·김주익·김나영·최미애·김기훈·조성환·김수학·김화옥·강용철·김영은·이현진·신은누리(2013), 『중학교 국어』, 서울: 미래엔.
- 이도영·김외곤·김혜정·서미선·서창현·신재홍·심영택·오윤주·이민수·장미정·한성우(2013), 『중학교 국어』, 파주: 창비.
- 이희원(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선정과 교수-학습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정숙(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단편소설 선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기철(2001),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서울: 역락.
- 정해권(2011),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의 통합적 위계화 방안」, 『한국어 교육』 22(1), 203-221.
- 조윤정(2016),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확장형 읽기를 위한 현대 단편 소설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련(2015),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현대소설 활용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은정(2002),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가가(2015),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현대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가연(2014), 「한국 가치문화 교육을 위한 소설 작품 선정」,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범(2014),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문화능력 평가방안: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설은(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 설계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김성숙·박연경(2004),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의 문학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문학수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231-280.

LIN JING (2015), 「중국의 한국 문학 교재에 구현된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제재 선정과 활동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어’과목용 한국 문학작품 선정 연구

—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남연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과목에서 활용될 문학작품을 선정해 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재조명하였고, 작품 선정 기준(인성 교육과 한국 문화 요소들)과 작품 선정의 참조 범위를 제시했다. 이어서 작품 선정의 실제 작업으로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 시장 점유율 톱 5위권에 들어 있는 교과서들 위주로 실린 현대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 목록을 제시했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지나친 문화주의 늪에 빠져 드는 기존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 인성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과목 포함)의 성격을 거듭 강조하였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작품 선정 참조 대상인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분석의 예를 통해 실제 분석 방법과 절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향후 작품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시사점을 주리라 믿는다.

핵심어 중국 대학교, ‘한국어’ 과목, 한국 문학작품, 선정 연구, 인성 교육

ABSTRACT

Selection of Korean Literature for Korean Language — Korean Language Students in Chinese Universities

Nan Yan

The study aims to select literary works to be used in Korean language Chinese universities. To that end, the researcher primarily re-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Korean language course and clarified the criteria for selecting Korean literature (humanity education and cultural factors) as a Reference range for works selection. the researcher analyzed textbooks ranked top five in market share among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1 revised curriculum.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 problems tradi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is mired in an excessive cultural cycle, and reiterated the na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umanity educ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length, the researcher failed to analyze all the textbooks that were referenced for the selection of works, but since the analysis showed the actual analysis methods and procedures, it is very meaningful to proceed with the selection process.

KEYWORDS Chinese Universities, Korean Language, Korean Literature, Research on the Selection of Works, Humanity Education